

2012 여수엑스포

광주·전남 업계 반응

'SOC 특수'... 건설·부동산 경기 활력 기대

2012 여수엑스포 유치 성공으로 지역 경제에 곳곳에서 벌써부터 기대감이 반발하고 있다.

여수엑스포가 14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불러오고 지역 숙원 사업인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속화 될 것이라 기대감 때문이다.

엑스포 기대감이 가장 먼저 나타난 곳은 증권시장. 27일 국내증시는 코스피지수와 코스닥지수 모두 소폭 반등하는데 그쳤지만 여수 엑스포 수혜주로 꼽히는 관련주들은 줄줄이 가격제하폭까지 올랐다.

광주·전남지역의 상장사 가운데선 여수의 산업폐기물 업체인 와이엔텍을 비롯해 여수지역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DSR제강, 동아에스텍, 성원라이프, 부국철강 등 5개사가 상한

7조원대 시설투자 "긴 불황 이전 탈출하나"

엑스포 테마주 날고 항공·여행계도 '웃음꽃'

가를 기록해 엑스포 기대감을 반영했다. 지역 건설업계는 여수 엑스포 유치가 침체된 지방 건설 및 부동산시장에 '단비'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는 SOC 확충 등 막대한 시설투자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건교부는 이날 2012년 엑스포 개최 이전에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조기완공을 포함해 도로·철도 등 11개 SOC 사업에 총 7조7천3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대한건설협회 정창선 광주시회장은 "SOC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경우 SOC 불황 부작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에 큰 활력소가 될 것"이라며 "특히 이는 극심한 침체에 빠진 민간 건설 및 주택경기를 회복시키는 중대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항공·여행업계도 기대감이 부풀어 있다. 업계는 엑스포 기간동안 외국인 40~50만

명을 포함해 국내외에서 795만명의 관람객이 여수를 찾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따라 대한항공은 향후 일정에 따라 신규 항공기 도입을 서두르고 있고, 아시아나항공은 무안공항과 인천공항 등 국제공항과 여수공항을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투어뱅크' 여행사 이용석 사장은 "엑스포 기간이 2012년 5월 12일부터 3개월로 계절적으로 여행하기에 좋아 침체된 지역 여행업계에 도 박이벤트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밖에 GS칼텍스 등 여수에 사업장을 둔 기업들도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여수 시민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며 적극적인 지원의사를 밝히고 있다. /장필수기자 bungy@최경희기자 choice@kwangju.co.kr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 축소

최저보증금률 40% 등 규제 명시

이르면 내년부터 증권사들은 신용공여 한도 규제가 증권업 감독규정에 명문화된다. 또 지금까지 3천만원만 투자해도 1억 원여치의 주식을 살 수 있었던 것이 내년부터는 반드시 4천만원 이상을 내야 1억원 어치를 살 수 있도록 바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사의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위원회가 신용공여 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증권업감독규정을 고쳐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거래보증금률의 하한선을 40%, 담보 유지비율의 최저율을 140%으로 각각 정했다. 예컨대 고객이 신용융자를 통해 1억원 어치의 주식을 사려면 지금까지는 3천만원만 있어도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적어도 4천만원을 투자해야 6천만원을 빌릴 수 있다.

또 신용융자를 받아 사들인 주식의 가치가 주가하락으로 떨어졌다면 추가로 현금·유가증권을 내야 담보가치를 최소한 140%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증권사의 신용공여에 대한 위험액 산정 기준도 변경해 고객의 담보가치의 50%만 인정키로 했다. 이를 적용하면 증권사의 영업용순자본비를 산정할 때 위험률 등을 감안해 100억원의 고객 대출금에 대해선 20억원을 위험액으로 인정한다. 16일 기준 증권업계 전체 신용공여규모는 10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 5.2%"

씨티글로벌마켓 전망 씨티글로벌마켓(CGMM)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5.2%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와 2009년에는 이보다 낮은 4.9%, 4.8%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2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CGMM은 '2008년 아시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은 수출과 소비에 기반한 활발한 경제성장을 지속할 것"이라며 "미국 경제둔화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미국 수출 비중이 2000년 21.8%에서 2007년 12.5%로 낮아진 반면 중국 비중이 2000년 10.7%에서 2005년 21.8%로 급증한 뒤 22% 안팎에서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CGMM은 "기본적으로 미국 경제가 연착륙에 성공하고 중국은 지속적으로 투자자본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CGMM은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 침체와 높은 이자율로 약세를 나타냈던 투자를 내년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

산업대출금 3분기 증가액 23조

3·4분기 은행들이 중소기업 등에 빌려준 산업대출금의 증가액이 23조원으로 가계대출 증가액의 4배에 육박했다.

은행들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 들어서도 중소기업 대출에 주력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7년 3·4분기 중 예금은행의 산업대출 동향'에 따르면 9월말 기준 예금은행의 산업대출금 잔액은 420조2천297억원으로 전분기말보다 23조2천354억원이 늘었다. 이같은 증가폭은 2분기(28조5천679억원)에 비해 다소 줄어든 것이지만 작년 하반기(23조2천374억원)와 비슷한 규모다. 산업대출 증가액은 작년 3분기 10조5천513억원, 4분기 12조6천861억원, 올 1분기 15조2천184억원으로 점차 규모를 확대하다 2분기 28조5천679조원으로 급증했다.

부문별로 보면 건설업과 서비스업, 제조업 모두 전분기에 비해서는 증가폭이 둔화됐지만 대체로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했다.

건설업 대출금 잔액은 9월말 42조8천365억원으로 3분기 중 3조60억원이, 제조업 대출금 잔액은 151조8천745억원으로 7조1천958억원 증가했다. 서비스업 대출금은 12조3천357억원이 늘었다. 서비스업 가운데 금융·보험업은 시기적으로 회사채 차환을 위한 자금수요가 물론 카드·캐피탈 등을 중심으로 1조7천626억원으로 늘어 1분기(-1조6천485억원), 2분기(-175억원)의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돌아섰다. /연합뉴스



증권으로 보는 세계사

회전은 오는 12월 12일까지 열린다.

증권업태결제원이 27일 서울 코엑스(COEX) 로비에서 '증권으로 보는 세계사'라는 주제의 특별 기획전을 연 가운데 개막식 참석자들이 행사주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기획전은 오는 12월 12일까지 열린다. /연합뉴스

국민 10명 중 1명만 "내 소득 만족"

2007 사회통계 조사

우리나라 국민 중 현재 자신의 소득수준에 대해 만족하는 사람은 10명 중 1명 꼴인 10%에 불과하고, 4명 중 3명은 현재의 소득분배나 빈부격차 상황에 대해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모 중 90%(복수응답)는 초등 학교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가장

일 발표했다. 응답자 중 76.9%는 우리 사회가 소득분배나 빈부격차 측면에서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체의 2.3%에 불과했고, '보통'은 20.8%였다. '불공평하다'의 비율은 도시지역(77.8%)이 농어촌지역(72.9%)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30대가 80.3%로

4명중 3명 "소득 분배 불공평하다"

부모 90% "돈 많이 들어 양육 어려워"

어려운 점으로 사교육비 및 양육비용의 부담을 꼽았고, 60세 이상 노인 10명 중 6명은 자녀와 떨어져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인터넷을 통해 신문뉴스를 접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신문 구독률은 올라갔지만 지난 1년 동안 책을 읽은 국민은 10명 중 6명 꼴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갈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은 올해 6월 전국 3만3천749구의 만 15세 이상 가구원 약 7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통계조사(복지·문화·여가·소득·소비) 결과를 4

현재의 소득분배 상황에 대해 가장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40대(78.9%), 20대(77.8%), 50대(76.9%) 등의 순이었다.

2007년 현재 15세 이상 인구 중 소득이 있는 사람은 전체의 64.0%로 2003년(63.5%)에 비해 0.5%포인트 증가했다.

그러나 소득이 있는 사람 중 현재 소득에 대해 만족하는 사람은 10명 중 한 명 꼴인 10%에 불과했고, 53.5%는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했다. 소득불만족 비율은 2003년 49.1%에 비해서는 4.4%포인트 높아졌다. /연합뉴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0대(47.4%)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불만족' 비율이 50%를 넘었으며, 40대가 56.5%로 가장 높았다. 아울러 본인의 노력에 비해 현재의 소득수준이 '낮다'고 응답한 이가 전체의 58.2%였고, '보통' 37.1%, '높다' 4.7% 등이었다. /연합뉴스

"내년 수출증가 둔화... 내수 활성화 필요"

전경련 경제전망 세미나

내년에는 세계경기 침체로 인해, 한국 경제를 지탱했던 수출마저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돼 과감한 내수활성화 정책이 긴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7일 여의도 회

관에서 '2008년 경제전망세미나'를 열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 등 세계경제 동향, 내년 한국 경제전망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부실이 내년 상반기까지 확대돼 각국의 금융불안이 반복됨으로써 실물경제 위

축으로 전이될 것이라며, 이는 우리의 수출 증가세 둔화를 불가피하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금융팀장은 "세계 금융불안 현상의 근본 원인은 글로벌 과잉유동성에 있다"며 "지난 4-5년간의 과잉유동성으로 인해 전세계 주택, 주식, 원자재 시장에 거품이 형성됐고 거품 해소 과정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에서 시작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취장암 진료비 가장 많이 든다

취장전절제술 1,156만원... 입원기간도 최고

11대 암중 위암환자 최다

11대암 입원 환자 비율 (단위:%)

건강보험 혜택으로 수술을 받는 암 가운데 가장 많은 진료비가 드는 암은 취장암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건강보험 적용을 받았을 경우를 가정해 산정한 진료비이며, 상급병실료 차액이나 선택진료비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용을 합하면 환자가 실제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이보다 훨씬 더 많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2006년 7~12월 위암, 간암, 대장암, 폐암, 갑상선암, 유방암, 췌장암, 방광암, 자궁경부암, 난소암, 식도암 등 암 질환 중에서 발생빈도가 높고 입원 환자 수가 많은 11대 암을 꼽아 암 질환별 입원일수와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를 홈페이지(www.hira.or.kr)에 공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대학병원 등 종합전문요양기관에 입원해 '수술'을 받은 경우 입원기간이 가장 긴 암 수술은 췌장암의 취장전절제술(34.5일), 식도암의 식도절제술(28.9일), 췌장암의 췌장부분절제술(27.4일)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암 질환 중에서 가장 많이 반면 입원기간이 짧은 암 수술은 간암의 혈관색전술(5.5일), 방광암의 혈관색전술(5.5일), 방광암의 요관경 이용 종양절제술(6일), 갑상선암의 편측절제술(6.2일) 등



이었다. 진료비가 가장 많이 드는 암 수술은 췌장암의 췌장전절제술(1천156만4천원), 식도암의 식도절제술(1천83만7천원), 간암의 간절제술(868만5천원) 등의 순이며, 진료비가 적은 암 수술은 방광암의 요관경 이용 종양절제술(123만6천원), 갑상선암의 편측절제술(17만6천원), 갑상선암의 양측절제술(17만9천원) 등이었다. /연합뉴스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시술 3회 지원

국회, 정부에 요구 검토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시술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는 현재 최대 두 차례로 제한돼 있는 불임부부에 대한 시험관아기 시술 지원 횟수를 최대 3차례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이는 시험관아기 시술에 성공하려면 두 차례의 수술로는 부족하다는 분석보고에 따른 것이다. 이 사업은 고액의 불임시술 비용 부담

때문에 출산을 포기한 불임부부를 대상으로 출산장려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3월 초부터 실시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법적으로 혼인상태에 있으면서 도시근로자 가구 월 평균소득 130% 이하(2인 가족 기준으로 435만원)이며,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이고, 시술 횟수를 통해서만 불임을 극복할 수 있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한 부부에 한해 한 차례 150만 원씩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원해주고 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한 차례 당 255만원 씩 최대 51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성 관광비용 1인당 18만원

박연폭포·선죽교 등 관광

개성관광 비용이 1인당 18만원에 책정됐다. 현대아산은 북측과 개성관광에 대해 협의한 결과 당일 관광비용을 현지 교통비, 식비, 여행자보험료 등을 포함해 1인당 18만원으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북측에 개성관광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은 1인당 총 100달러로 입력료가 50달러, 해설안내비와 관광시설 유지비 등이 30달러, 점심 식사가 20달러"라고 말했다.

관광 일정은 오전에 박연폭포와 관음사를 관람하며 점심으로 북측식당인 민속식당과 통일관에서 점심 식사와 개성약밥을 먹고 오후에는 민속여관, 고려박물관, 선죽교를 본 뒤 개성공단을 경유해 오후 5시 남측으로 넘어오게 된다. 관광코스는 박연폭포와 관음사를 관광하는 박연반을 기본으로 운영하며 원하는 관광객이 있으면 왕릉반, 영통사만 관람하는 영통사반을 별도로 편성할 예정이다. 예약은 출발 10일전까지 전국의 관광대리점(3669-3000)을 통해 가능하다. /연합뉴스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 베스트 CEO 1위

박현주(사진) 미래에셋 회장이 올해 '베스트 CEO(최고경영자)' 1위에 선정됐다고 경영전문지 '월간 CEO'가 27일 밝혔다.

월간 CEO는 최근 언론사 경제기자, 경제·산업부장, 증권사 애널리스트, 경제·경영 대학교수 등 5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2007 베스트 CEO 10인'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월간 CEO가 선정된 10인은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이구택 포스코 회장, 구학서 신세계 부회장, 남용 LG 전자 부회장,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

장, 권영수 LG 필립스LCD 사장, 최희영 NHN 사장, 김종갑 하이닉스 반도체 사장, 손주은 메가스터디 사장, 라웅찬 신한투자회장이었다. 박현주 회장은 올해 중시 협력을 타고 1위에 오른 것으로 분석됐으며 최근 부진한 실적으로 보인 삼성전자의 이기태 부회장, 황창규 사장은 지난해와 달리 베스트 CEO 10인에 선정되지 못했다. /연합뉴스

